



수출촉진 대책회의 개최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최근의 수출·입 동향 점검과 업계의 수출애로 협의 등을 위해 지난 6월 24일 진흥회 회의실에서 주요 수출업체 실무담당자 및 산업자원부 관계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8 상반기 수출촉진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98. 1~5월까지의 수출·입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수출촉진 대응책 마련을 위한 협회가 있었으며,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업계의 실상을 파악, 대정부 건의키로 했다.

이날 업계에서 수출업무와 관련하여 제시한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먼저 외국 인증 획득의 어려움과 국내 인증기관과의 상호 인증 미협정에 따른 이중 시험문제, 동남아시아 위축 및 중국 저가공세 등으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가격인하의 지속적 요구로 인한 채산성 악화 등을 꼽았다. 또한, 최근 내수 부진을 수출로 만회하기 위하여 수출선을 다변화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으로 이 또한 여의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보를 수집·전파해 줄 것을 건의했다.

1. '98 상반기(1~5월) 수출동향

- ▶ '98년 1~5월까지 수출은 628백만불로 '97년도 동기대비 8.8%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중전기기가 403백만불, 전선이 225백만불로 각각 8.9%, 8.7% 감소 하였음.
- ▶ 그동안 지속적인 수출 증가를 보이던 전선, 변압기, 배전제어장치, 전동공구등이 '97년 기점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발전기, 개폐기 및 차단기는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나타내고 있음.
- ▶ 지속적인 수출호조를 보이고 있는 발전세트는 최근의 수주된 선박용 발전세트 수주에 따라 수출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전기용접기, 전기로, 개폐기 등은 중국, 필리핀, 대만에서 기 수주된 물량을 납품한 것임.

이는 동남아 금융위기 이전에 수출주문을 받은 것이나, 최근 수주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98년도 상반기(1~5월) 수출 호조품목 》

품 목		용 량	
발전기	압축점화식 발전세트	출력 3,500KVA 초과	출력 75 - 375KVA
	기타 발전세트	출력 750 - 1,500VA 이하	
	교류발전기	출력 400KW에 상응	출력 750KVA 초과
차단기	자동차단기	정격전압 7.25 - 72.5KV 미만	
		부 분 품	
개폐기	격리용, 회로단속용 개폐기	정격전압 7.25 - 72.5KV 미만	
전기로	저항가열식 노와오븐 (반도체 제조용의 것 제외)	기 타	
	금속공업용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오븐	금속공업용의 것	
	기타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가열기	기타 노와오븐(저항가열식 제외)	
전기 용접기	금속의 저항 용접용 기기	점용접기기(전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으로서 로보터형의 것)	
	금속의 아크 또는 플라즈마 아크용접기	기타 교류아크용접기(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 최근 수출이 크게 감소한 품목은 변환장치, 전동공구, 배전제어장치, 기타 전선, 전동기, 변압기 순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주력시장인 동남아 시장에서 수출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며 이런 수출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임.

《 '98 상반기(1~5월) 수출감소 품목 》

품 목		용 량
전 선		접속자와 부착한 플라스틱 절연전선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전선
		기타 종이 절연전선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
		기타의 전기도체(전압 800볼트 이하)
		접속자와 부착한 플라스틱 절연전선(전압 80~1,000)
		기타 접속자와 부착한 전기도체(전력 80~1,000볼트)
		기타의 전기도체(전압 10KV 이하)
		플라스틱 절연전선(전압 100KV 초과)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도체
	광섬유케이블	
변 환 장 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배전제어장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전 동 공 구		각종의 전기드릴
		전 기 톱
전 동 기	직류·교류겸용 전동기	출력 750KW 초과
		출력 100W - 750W 이하
	다상교류 전동기	출력 375KW 이하
		출력 750KW 이하

《 품목별 수출실적 》

(단위 : 천불)

구 분	'96		'97		'97(1~5월)		'98(1~5월)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총 계	1,779,023	23.0	1,778,604	-	689,265	1.5	628,417	△8.8
중 전 기 기	1,153,546	20.6	1,155,389	0.2	442,448	△0.8	403,144	△8.9
발 전 기	54,944	12.9	94,075	71.2	31,496	48.1	42,064	33.6
전 동 기	56,087	4.9	67,147	19.7	28,826	42.4	27,246	△5.5
전 동 공 구	38,594	10.2	36,913	△4.4	16,478	21.1	12,121	△26.4
변 압 기	416,840	12.8	415,581	△0.3	160,481	△5.6	152,625	△4.9
차 단 기	44,658	36.2	35,512	△20.5	11,903	20.3	14,215	19.4
개 폐 기	13,193	11.9	20,095	52.3	6,342	20.5	7,223	13.9
배전제어장치	148,018	72.4	134,781	△8.9	49,974	△8.3	38,194	△23.6
변 환 장 치	201,524	74.9	170,764	△15.3	68,868	△14.2	37,748	△45.2
전 기 로	12,208	42.5	11,390	△6.7	2,533	△54.1	5,385	112.6
전 기 용 접 기	52,468	18.9	52,017	△0.9	19,570	△23.2	27,440	40.2
기 타	115,012	12.8	117,114	1.8	45,977	15.5	38,883	△15.4
전 선	625,477	27.7	623,215	△0.4	246,781	5.9	225,273	△8.7

◎ 자료원 :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전기공업통계”

◎ “△” 은 감소

가. 지역별(국가별)

- '90년초 부터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수출이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의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가 크게 침체됨에 따라 '97년도 하반기부터

수출이 감소하고 있음.

- 지역별 수출비중을 보면 아시아가 60%로 가장 많고, 북미(9.7%), EU(6%), 중동(5.6%), 중남미(5.3%), 오세니아(1.2%) 순으로 보이고 있음.

《 지역별 수출실적 ('98. 1~4월) 》

(단위 : 천불)

구 분	아 시 아	중 동	E U	북 미	중 남 미	오세아니아	기 타
총 계	310,552	27,574	29,780	48,334	26,234	5,867	48,389
중 전 기 기	203,951	18,911	18,230	45,124	18,838	1,249	15,499
발 전 기	21,395	27	1,877	1,719	104	1	7,688
전 동 기	13,633	122	419	4,539	1,272	21	194
전 동 공 구	3,155	244	1,734	2,933	553	227	301
변 압 기	75,225	2,082	8,830	16,034	12,283	172	1,269
차 단 기	5,089	92	216	3,045	2,311	37	98
개 폐 기	5,180	192	3	691	11	118	356
배 전 제 어 장 치	14,594	15,613	734	2,615	65	417	436
변 환 장 치	18,865	21	2,403	8,052	824	65	5
전 기 로	3,402	13	-	605	2	-	646
전 기 용 접 기	21,235	442	468	485	515	9	1,078
기 타	22,178	63	1,546	4,406	898	94	
전 선	10,601	8,663	11,550	3,210	7,396	4,618	32,890

◎ 자료원 :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전기공업통계”

1) 지역별 수출부진 사유

- 우리 전기업체의 수출 비중이 높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최근 통화 폭락에 따른 경기침체와 설비

투자 감소로 인하여 수출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일본의 엔저로 인하여 수출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저가의 중국산 제품의 진출로 가격경쟁

력이 취약한 일부 중전기기 제품은 수출이 점점 감소되고 있음.

그러나 중남미 지역에서는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에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나. 품목별 수출동향

-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품목은 변환장치로 최근 아시아지역의 금융위기로 설비투자 위축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전동공구는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에 의해 크게 잠식당하고 있으며, 가격 및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제품의 수출은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다.
 - 수출감소 국가 : 홍콩, 태국, 인도 등
- 전동기는 '97년 동기대비 5.5%가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중동등 지역에서 뚜렷한 감소를 보이고 있음.
- 변압기는 동남아 지역의 경기침체로 '97년 하반기부터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97년 동기대비 4.9% 감소하였음. 수출이 크게 감소를 보인 국가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집트 등으로 동 지역에 대한 수출 강구책이 요구됨.
- 전선은 '97년 동기대비 8.7% 감소를 보이고 있음. 국가별로는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베트남, 중국, 요르단 등 경기성장이 예상되는 국가들은 꾸준한 설비투자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음.

2. '98년도 하반기 전망

- ▶ '98년 수출전망은 중전기기 1,069백만불, 전선 569백만불 등 총 1,638백만불을 예상하고 있으나, 동남아지역 경기침체 및 내수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과 '98년 1~5월에도 수출부진이 계속되고 있음.
 - 수출호조품목 : 발전기, 개폐기, 차단기, 전기로, 전기용접기
 - 수출부진품목 : 전동기, 전동공구, 변압기, 변환장치, 배전제어장치, 전선

3. 수출촉진 대책

【 단기적 】

- ▶ 해외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단을 수출유망 지역에 파견하여 한국 중전제품의 우수성 홍보
 - '98. 9 : 남미 전기공업 수출촉진단 파견
 - '98. 11 : 일본 전기공업 수출촉진단 파견

【 장기적 】

- ▶ 중전업계의 전문화, 합병 등으로 구조조정
 - 동종업계간의 합병추진
- ▶ 품목별, 지역별 수출 다변화

- ▶ 중전기기 해외 수출정보센터 구축 - 해외규격 획득, 전시회 참가, 유망지역 개
- ▶ 중전기기 해외시장 개척기금을 조성하여 - 척단 파견시 지원 등
- 업체 지원 ▶ 국내 업체간의 덤핑방지 대책 수립

《 '98 수출전망 》

(단위 : 천불)

구 분	'96	'97	'98 전망	
				증 감 율
총 계	1,779,023	1,778,604	1,637,561	△7.9
중 전기 기	1,153,546	1,155,389	1,068,566	△7.5
발 전 기	54,944	94,075	125,684	33.6
전 동 기	56,087	67,147	63,454	△5.5
전 동 공 구	38,594	36,913	27,168	△26.4
변 압 기	416,840	415,581	395,218	△4.9
차 단 기	44,658	35,512	42,401	19.4
개 폐 기	13,193	20,095	22,888	13.9
배전제어장치	148,018	134,781	102,973	△23.6
변 환 장 치	201,524	170,764	93,579	△45.2
전 기 로	12,208	11,390	18,566	63.0
전 기 용 접 기	52,468	52,017	77,557	49.1
기 타	115,012	117,114	99,078	△15.4
전 선	625,477	623,215	568,995	△8.7

◎ 자료원 :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전기공업통계”

◎ “△” 은 감소

◎ '98년 전망은 '98년 1~5월까지의 증감율 적용

「남미 전기공업 수출촉진단」 참가업체 모집

남미국가들은 '91년 3월에 창설한 MERSUR (남미공동시장)를 중심으로 '95년 1월에는 관세동맹화를 실현하였고, 최근에는 2억4천만명의 역내인구와 1조달러의 생산규모를 갖춘 남미 최대의 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이들 국가는 정치·경제가 안정되면서 산업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규모 발전설비 및 전력기자재 수요가 크게 급증되

는 지역으로서 우리 전기공업계의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이에 한국전기공업진흥회에서는 우리 전기공업계의 침체된 내수경기를 보다 활성화 하고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남미 전기공업수출촉진단」을 오는 '98. 9. 5~9. 14(10일간)까지 파견코자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남미 전기공업 수출촉진단 파견 계획

1. 목 적
 - 남미지역의 중전기기 현황 및 전기공업 수출시장 조사
 - 상대국 구매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유대 강화
 - 현지업체와 수출상담을 통한 수출시장 확보
 - 국내 중전기기 현황소개 및 기술교류 창구 마련
 -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홍보
2. 촉진단 개요
 - 명 칭 : 남미 전기공업 수출촉진단
 - 방문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 파 견 : '98. 9. 5~9. 14 (10일간)
 - 모집인원 및 대상
 - 인원 : 10개사
 - 구성 : 업계, 산자부, 한전, 진흥회
3. 촉진단 주요 활동
 -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전기기 수출상담회 개최
 - 브라질, 아르헨티나 전력청 방문
 - 중전기기 제조공장 견학
 - 브라질, 아르헨티나 전기공업협회 방문 공

동관심사 논의

- 이과수 및 이다이프의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 견학
- 우리나라 중전기기 우수성 및 서울국제중합전기기기전 홍보

4. 참가경비

신청자 부담(추후 확정후 통보예정)

- * 단, 한전 중소기업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여행성 경비를 제외한 수출상담비(통역비, 장소임차비, 행사 중식비 및 교통비 등)를 한전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5. 참가신청 및 신청기간

- 1) 참가신청 : 진흥회 소정 참가 신청서

업체 제품 소개 카탈로그(영문판) 4부 제출요망

2) 신청기한 : '98. 6. 24~8. 15

* 신청자 접수 순서에 따라 마감 예정입니다.

6. 문의 및 접수처

- 진흥회 국제과
 - 전화 : (02)3476-0271
 - 팩스 : (02)3476-0275
- 한전 중소기업지원팀
 - 전화 : (02)550-4683
 - 팩스 : (02)550-4679

「전기산업 수출애로 타개반」 설치·운영

최근 중전기기, 전선등 전기공업계는 수출 감소와 채산성 악화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우리업체의 해외수출, 투자, 법규, 현지 영업활동 등의 애로사항 등을 발굴하여 대정부 건의 및 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전기산업 수출애로 타개반」을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타개반 구성 및 문의처

- 구 성 : 한국전기공업진흥회 국제과
 - 반장 : 국제과장
 - 반원 : 국제과 직원 2명
- 연락처
 - 전화 : (02)3476-0271/4
 - 팩스 : (02)3476-0275

2. 운영방법

- 대상업체 : 충전기기, 전선등 전기기기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기업
- 대상품목 : 발전기, 전동기, 전동공구, 변압기, 개폐기, 차단기, 변환장치, 배전제어장치, 전기용접기, 전기로, 전선, 조명기기, 전력기자재 등 전기기기 전분야
- 접수시기 :
 - 년중 수시로 전화, 팩스, 우편으로 별첨양식에 의거 접수
 - 업체가 원할 경우 방문 상담

3. 처리방법

- 업체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 접수 → 전

기산업 수출애로 타개반에서 접수내용 검토 → 산업자원부 반도체·전기과와 협의 → 대정부 건의 → 정부로 부터 조치내용 접수 → 조치내용 업체에 통보

- 업체로부터 접수받은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전기산업 수출애로 타개반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주무과인 반도체전기과와 협의하여 신속처리
- 업체·정부·단체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처리
- 각 업체로부터 접수된 애로 및 건의사항의 내용은 그 처리 결과를 CODE화 하여 기록을 보존하고 산업자원부에 매월 2회 보고

